

#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방안 연구: 2024 길 위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Library Programs Based on the Records Continuum: Focusing on the 2024 Humanities on the Road

이태용(Tae Yong Lee)<sup>1</sup>, 박성재(Sung Jae Park)<sup>2</sup>

E-mail: l164084@naver.com, spark@hansung.ac.kr



<sup>1</sup> 제 1저자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sup>2</sup> 교신저자 한성대학교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

논문접수 2026-04-14

최초심사 2026-04-22

게재확정 2026-05-21

### ORCID

Tae Yong Lee   
https://orcid.org/0009-0005-1563-545X

Sung Jae Park   
https://orcid.org/0000-0002-8352-068X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초 록

본 연구는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기록이 생산 초기부터 연속적·다원적 맥락 속에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담당자 면담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생산·획득·조직화·다원화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생산 주체 간 기록 생산 기준의 비일관성과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도서관 외부 시스템 중심의 분산된 획득 구조로 인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별 분류 기준의 차이로 기록의 맥락화와 구조화가 미흡하고, 활용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 주체별 기록 유형의 사전 목록화, 전자기록 기반의 통합 기록관리체계 구축, 다층적 분류체계 설계, 지역사회 참여 기반 아카이브 조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2024 Humanities on the Road program through the lens of Records Continuum theory, investigating strategies to ensure that records gener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library programs are managed from inception in a continuous, multidimensional manner. Business processes were identifi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subsequently categorized into the dimensions of creation, capture, organization, and pluralization, utilizing content analysis of interview data from relevant personnel. The findings revealed inconsistencies in record-keeping standards across various record creators and omissions of required records. Moreover, integrated management is hampered by a decentralized acquisition structure centered on external library systems. Furthermore, variations in classification standards among libraries have led to inadequate contextualization and organization of records, resulting in limited utiliza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developing a preliminary inventory of record types by record creat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cords management system utilizing electronic records, implementing a multi-tiered classification system, and developing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archives.

**Keywords:**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레코드 컨티뉴엄, 기록관리, 다원화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Programs, Records Continuum, Records Management, Pluralise

https://jksarm.koar.kr

##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여가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생활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부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시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응하고자 유아, 청소년, 성인 등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최상희, 2020).

공공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 “문화·학습·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세대 공감 프로그램 확대” 등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다양한 기록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획부터 진행,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록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기록은 단순한 행정 산출물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 주체들의 경험과 활동을 반영한 정보로 구성되며, 향후 활용 가능성을 지닌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설립 주체(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 등) 및 운영 방식(직영, 위탁)에 따라 기록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안현진, 2023). 특히 재단법인이나 공단과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담 인력의 부재, 기록 분류체계의 미비,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기록 관리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한 프로그램 기록의 경우에는 그 관리의 미흡함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생산된 기록은 효과적으로 수집·보존·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관된 관리체계의 부재는 기록관리 측면에서 연속적인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행정 처리를 위한 관리 수준을 넘어, 기록이 생산되는 초기 단계부터 연속적이고 다원적인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기록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핵심 개념인 ‘기록의 연속성과 다원성’과 부합하며, 향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에 있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대표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인 ‘2024 길 위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적용하여 해당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공도서관 행정기록관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공공도서관’과 ‘기록관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행정기록관리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에 따르면 ‘도서관’은 ‘정보자료와 정보서비스를 조직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며, 『도서관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정보이용과 학습활동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서관은 설립 목적과 이용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평생학습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한편, 기록관리는 기록학용어사전(2008)에서 ‘기록의 생산, 유지, 활용, 처분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신뢰가능한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능으로 작용한다.

도서관과 기록관리는 모두 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제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공공도서관은 자료 제공 기능과 더불어 행정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행정기록관리를 ‘도서관의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2.2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 문화·교육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은 ‘독서문화행사’, ‘평생교육 강좌’, ‘문화강좌’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중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문화·교육적 활동 전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을 포괄하여 ‘프로그램 기록’으로 개념화한다. 프로그램 기록은 단순한 행정적 산출물을 넘어, 공공도서관의 활동 목적과 수행 과정을 입증하는 실질적 증거이며, 향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활용 가능한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행정기록과 비행정기록이 혼재되어 있으며, 참여자 경험과 지역사회 반응 등 다양한 맥락을 포함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록 중심의 관리체제로 인해 비정형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기록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그 결과 기록의 분산과 누락, 비밀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연속적 관리와 맥락적 이해를 저해하고,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는 다양한 참여 주체와 지역사회 맥락을 반영하는 복합적 기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은 생산 초기부터 활용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연속적·다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석·재활용 가능한 지식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정체성 강화, 신뢰 형성의 기반이 된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비와 정연경(2021)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구술채록, 단행본 발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구술채록 프로그램에는 사서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역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구술기록물의 수집부터 생산, 보존 및 처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사례와 현황을 토대로 정책 수립, 교육, 홍보, 전문인력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은주와 박지영(2024)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 아카이브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A 도서관 아카이브 전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시 아카이브 컬렉션을 구축하였고, 시범 구축을 통해 전시 아카이브의 확산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표준, 세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동 활용 가능한 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문화적 역할과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통합적이고 다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록관리 체계의 적용은 미비하다.

### 2.3 레코드 컨티뉴엄

레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은 기존 종이 기록 환경에서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이론에 대한 반향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호주의 기록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태동하였으며, 전자기록 환경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기록학으로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기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제시하는 선형적이고 이원화된 기록관리 패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론으로, 호주 『AS 4390』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록의 생산 및 이관 단계에서부터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관리체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김명훈, 2021).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둔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다르게 기록이 생산되는 복합적인 현실 속에서 기록의 다원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기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단절적인 기록관리를 지양하고 기록의 생산부터 최종 단계인 보존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지향하게 된다.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은 생산(Create), 획득(Capture), 조직화(Organise), 다원화(Pluralise) 4개의 차원과 행위주체(Identity), 업무행위(Transaction), 증거(Evidence), 레코드키퍼(Recordkeeping)으로 된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차원과 4개의 축선이 만나면서 총 16개의 엔티티(entity)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엔티티는 각 축선을 따라 차원 1인 생산부터 차원 4, 다원화로 확장되며 기록관리가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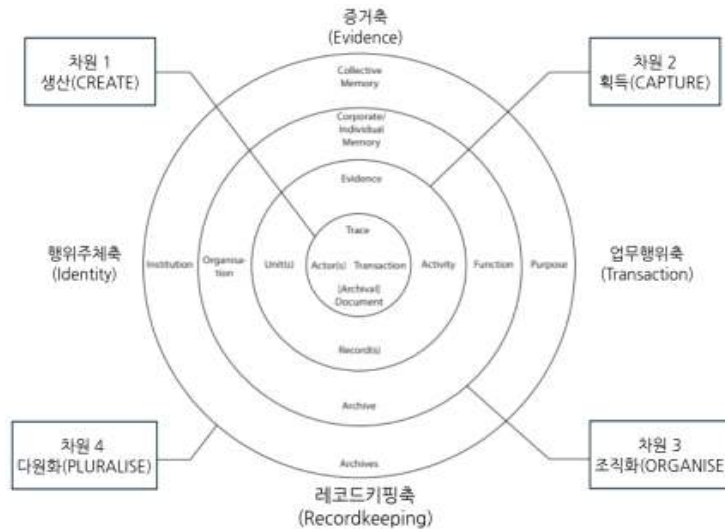
먼저 4개의 축은 기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설명한다. ‘행위주체’는 기록을 생산하는 행위 주체와 구조적 출처를 의미하며, ‘업무행위’는 기록이 생산되는 업무의 기능적 맥락을 나타낸다. ‘증거’는 기록이 업무 수행의 증거로 기능하는 속성을 설명하며, ‘레코드키퍼’는 기록이 생산·관리·보존·활용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개의 축은 기록이 단순한 정보 객체가 아니라 행위, 맥락, 증거성, 관리체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4개의 차원은 기록이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차원 1 ‘생산(Create)’은 업무행위의 흔적으로서 도큐먼트가 생성되는 단계이며, 차원 2 ‘획득(Capture)’은 생성된 도큐먼트가 맥락을 부여받아 기록으로 조직 내부로 편입되는 단계이다. 차원 3 ‘조직화(Organize)’는 기록이 조직 차원에서 구조화·재구성되는 과정이며, 차원 4 ‘다원화(Pluralize)’는 기록이 조직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활용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들은 순차적으로 분리된 단계라기보다 상호 연속적·동시적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지닌다. 아래 모델 그림과 같이 각 차원은 고정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되거나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개별 구성 요소들 또한 상호 중첩되고 삼투(passed into)하는 관계를 나타낸다(원종관, 2008). 즉, 기록은 생산 이후 일방향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이 동시적·다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맥락을 획득한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이 생산 이후 일정한 단계에 따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반복

적으로 활용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주체와 다양한 맥락이 반영되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의 성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이 순환적으로 활용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기록을 단절된 관리 단계가 아닌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이해하고, 생산 초기부터 장기적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록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

국내에서 진행된 레코드 컨티뉴엄 관련 연구는 이론 소개,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의 해석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로 현황을 설명하는 응용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

이승억(2001)은 기록물기준표 도입 당시 제도적 특성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레코드키퍼(Recordkeeping) 개념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고찰하였다. 원종관(2008)은 증거와 기억의 개념을 중심으로 레코드 컨티뉴엄의 철학적 사조를 고찰하고, Upward가 창시한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김명훈(2010; 2021; 2022)은 레코드 컨티뉴엄 내에서 기록의 평가 논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에서 나타내고 있는 기록의 의미와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의 한계를 연구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 응용 연구와 관련하여 김명훈(2017)은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록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교회 기록 콘텐츠 사례를 재해석하였다.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생산 기록의 특성, 기록관리 행위와 같은 기록관리적 현상을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의 축선과 차원에 대입하여 체계화시켰다.

박예진(2022)은 방송사 보도국을 연구의 주체로 설정하고,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의 네 가지 차원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보도 영상 기록관리 체계를 재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송 영상 기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노명환(2023)은 노근리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를 분석함으로써,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과 공공역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에서 기록의 힘,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 그리고 끊임없는 의미 생성 과정을 조명하였다. 노근리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이 다양한 기록들과의 지속적인 맥락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단순한 재현의 흔적에서 증거로, 증거에서 기억으로, 나아가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여 프로그램 기록관리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레코드 컨티뉴엄 응용 연구인 박예진(2022)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인 ‘2024 길 위의 인문학’을 대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기록관리 실태를 레코드 컨티뉴엄의 네 가지 차원(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차원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론

####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되며, 각 단계에서 생산·획득되는 기록의 유형과 그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각 단계별 기록 유형과 생산·획득 주체를 파악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내용 분석하여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 차원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기록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차원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기반한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 3.2 분석 대상

연구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대표적 인문학 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중 2024년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을 기반으로 인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인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운영된 프로그램으로, 강연, 탐방, 체험, 후속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 참여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시설별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기관 간 연계 부족, 운영 방식의 경직성 등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2024년에는 참여시설 구분을 통합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가 개편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프로그램 기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 도서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화 프로그램인 ‘지혜학교’의 참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505개 프로그램이 5,987회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문화시설 담당자, 강사,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약 13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공공도서관은 전체 프로그램의 약 61%와 운영 회차의 약 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참여 기관 중에서도 사업 수행 비중이 높고, 프로그램 유형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공공도서관 담당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과 그 관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3.3 자료 수집 방법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업무 프로세스와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면담을 병행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한 사업 공고문, 공문서, 운영 매뉴얼, 결과보고서와 공공도서관의 사업관리시스템 내 기록물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자료의 범위와 성격을 확인하였다.

면담은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담당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고 공공도서관 참여율이 높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 소속이면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하여 적합한 참여자를 확장하였다.

면담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각 기관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동의를 거쳐 녹음 및 전사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와 해석 내용은 관련 문헌 및 수집 자료와의 교차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업무 프로세스를 공공도서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업무 분석은 조직 내 수행되는 업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전체 운영 단계를 식별한 후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세부 업무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생산·획득되는 기록의 유형과 기록의 생산 및 획득 주체를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이 생산·수집되는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도출된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기록 생산 및 관리 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담당자 면담 자료를 대상으로 연역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네 가지 차원인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를 설정하였다. 분석 절차는 먼저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맥락을 파악한 후, 연구문제와 관련된 진술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단위는 하나의 명확한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 또는 문단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의미 단위를 비교·분석하여 하위범주로 묶고, 이를 상위범주로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의미 단위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차원과의 개념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록관리 실태를 차원별로 체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 프로세스 분석 결과와 기록관리 실태 분석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생산 및 획득 차원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고, 면담 분석을 통해 조직화 및 다원화 차원에서의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의 연속성과 다원성을 반영한 실천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록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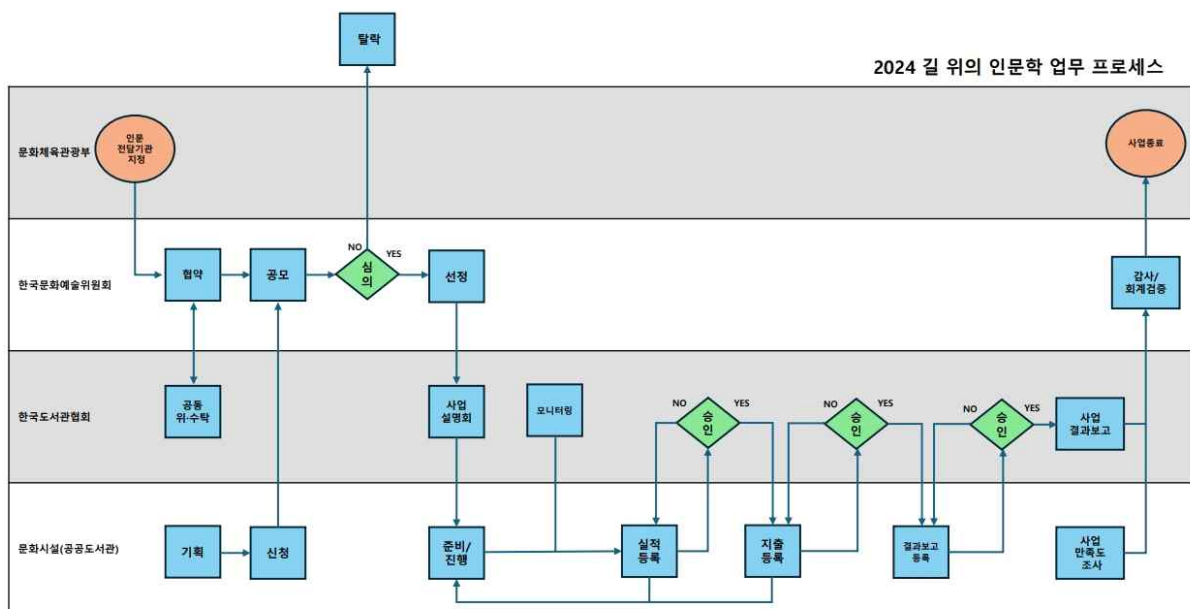
### 4.1 길 위의 인문학 업무 프로세스 분석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업무 프로세스는 공모, 준비, 운영, 정산 및 종료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설위원회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문화예술회설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인문네트워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등록하였다. 이후 심의를 통해 선정된 도서관은 해당 연도의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선정 이후 공공도서관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기본정보와 업무협약서, 보안각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서류 등 사전 제출 자료를 등록하였다. 이어 회차별 운영계획, 예산, 인력, 참여 인원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였다.

운영 단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홍보물, 강의자료, 활동지, 사진, 결과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생산하였다. 각 회차 종료 후에는 참여자 수, 운영 실적, 프로그램 사진 등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또한 사례비 및 운영비 집행을 위해 강사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하였다. 이러한 실적 및 지출 등록 절차는 회차별로 반복되었으며, 모든 회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전반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단계에서는 사업비 카드와 인증서가 저장된 USB, 책자 및 결과물 등 실물 성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일부 결과물은 공공도서관 내부에 별도로 보관되었다. 이후 만족도 조사와 결과보고, 회계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기록 생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과정은 기획, 진행, 완료의 3단계로 재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 계획, 공모 신청, 사전 서류 준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록, 지출 등록, 결과보고의 7개 세부 업무가 도출되었다.



〈그림 2〉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업무 프로세스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공모 신청 업무를 중심으로 기록 생산이 이루어졌다. 공공도서관 담당자는 사업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문네트워크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정보, 담당자 정보, 프로그램 유형 등의 메타데이터가 함께 축적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공모신청서는 단순 문서를 넘어 업무 수행 맥락이 포함된 기록으로 획득되었으며, 기록의 생산 주체는 공공도서관 담당자, 획득 주체는 인문네트워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확인되었다.

진행 단계에서는 공모 선정 이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이 생산되었다. 공공도서관 담당자는 업무협약서, 보안각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예방교육 이수증, 사업비 카드 관련 서류 등 여러 사전 제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예산, 강사 및 보조 인력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또한 생산하였다. 이러한 도큐먼트들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제출 시점, 승인 여부, 담당자 정보 등의 업무 맥락 정보와 함께 획득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도서관협회가 기록 획득 및 관리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료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실적 등록, 지출 등록, 결과보고 등의 업무 과정에서 기록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도서관 담당자는 회차별 참여자 수, 홍보물, 프로그램 진행 사진 등을 등록하여 운영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사례비 및 운영비 집행 과정에서 강사 계약서, 사례비 영수증, 구매 영수증, 견적서 등의 지출 증빙 문서를 생산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예산 집행 내역, 담당자 평가 및 소감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차 정보, 지출 항목 및 금액, 승인 여부 등의 업무 맥락 정보가 함께 축적되었으며, 반복적인 등록 구조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과 기록 생산의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는 공공도서관 담당자가 기록의 생산 주체로 기능하였으며, 생산된 도큐먼트들은 인문네트워크시스템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맥락 정보와 함께 기록으로 획득·관리되었다. 또한 기록 획득의 주체는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 전반에서 기록 생산과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기록관리 실태 분석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담당자 7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수집된 면담 자료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네 차원인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 차원에 따라 분석하였다. 면담 내용은 전사 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 22개의 주요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범주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의미 단위 간의 개념적 유사성과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8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들은 다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네 개 차원에 따라 통합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마다 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기록이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되기보다는 사업 수행과 행정적 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기록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기록 생산의 주체는 공공도서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강사, 보조 인력, 프로그램 참여자까지 포함되었으며, 각 주체는 서로 다른 유형의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 담당자는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기획안 등 행정적 성격의 기록을 생산하였고, 강사는 강의자료와 수업 운영 자료를 생산하였다. 참여자는 활동지, 사진, 그림, 글, 에세이, 그림책 등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하였다. 특히 동일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연도별 프로그램의 주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이 달라졌으며, 일부 기록은 도서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생산 여부가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행정기록은 비교적 정형화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을 반영하는 기록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비정형적으

로 생산되고 있었다.

획득 차원에서는 생산된 기록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해 분산적으로 획득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기록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 내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는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일부 행정기록만 제한적으로 등록되고 있었다. 즉, 기록의 획득 주체가 공공도서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기록의 유형과 활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는 구조를 보였다. 특히 강의자료, 사진, 그림, 참여자 결과물 등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을 반영하는 기록은 공공도서관 내부 시스템에 통합적으로 획득되지 못하고, 각 도서관별로 별도 보관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기록 간의 논리적 연계와 맥락 유지가 어려웠으며, 사업 종료 이후 외부 시스템 접근이 제한될 경우 기록이 조직 내부의 기록으로 남지 못하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조직화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 내부에서 기록을 재배치하고 구조화하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들은 주로 ‘계획’, ‘운영’, ‘지출’, ‘보고’와 같은 업무 기능이나 예산 출처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분류 기준은 공공도서관마다 상이하였다. 동일한 유형의 기록도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일부 담당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기록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록은 시스템에 등록되고는 있었지만, 조직의 업무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배치되거나 다른 기록과 연계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행정기록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록은 조직 내부에서 별도로 분류·정리되지 않고 외부 시스템이나 개별 보관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책자나 그림책과 같은 결과물은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향토자료나 별치자료의 형태로 재배치하고, 열람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역시 개별 도서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통합적 조직화 체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원화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기록이 초기의 행정적 목적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참여자들이 생산한 글, 사진, 그림, 책자 등을 전시하거나 출판물로 제작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결과물을 활용하여 도서관 내 전시공간을 구성하거나, 추후 새로운 행사나 프로그램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대부분 개별 담당자의 자율적 기획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 차원의 공식적인 기록관리 전략이나 장기적 아카이빙 계획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연 단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매년 주제와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다원화는 기록을 단기적으로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록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기록 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기록관리 실태 범주화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생산	생산 주체	공공도서관 담당자, 강사, 보조 인력, 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가 행정기록, 강의 자료, 활동지, 사진, 그림 등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함.
		문화시설 담당자, 참여자, 강사와 같은 주체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기록을 생산함.
	생산된 기록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이 달라지며, 22년도에는 행정기록 위주, 24년도에는 시, 에세이, 사진 등 참여자 중심 기록이 생산됨.
		행정기록, 활동지, 출석부(개인정보 제외), 참여 사진, 그림을 모은 그림책 등이 기록으로 생산되었으며, 홍보용 포스터는 제작하지 않음. 공공도서관 담당자에 의해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기획안 등의 기록이 생산되었고, 참여자들은 탐방 사진과 에세이를, 강사는 강의자료를 생산함.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획득	사업관리시스템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강사비 등의 기록들을 모두 등록함.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인문학 프로그램 기록을 등록하지 않음.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발생된 지출 서류 및 출석부와 같은 기록들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함.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내 등록되는 프로그램 기록이 3-4개 정도로 제한적임. 프로그램 기록이 사업 신청부터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일부 문서만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음.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기록 대부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일부 행정 업무적 기록만 도서관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됨.
조직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조직화	예산의 재원 출처에 따라 기록이 내부 행사 폴더와 외부 지원 사업 폴더로 분류됨. 시스템 내 기록물 철이 구현되어 있으나, 명확한 분류 기준 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기록이 유형별로 일괄 분류됨. 전자문서가 팀 단위로 분류된 후, 도서관별로 문서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관리됨.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직화	길 위의 인문학 책자와 더불어 그림책으로 만들어진 기록들을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대출 가능하도록 제공함. 아동 제작 그림책을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그림책 공작소'라는 별칭기호를 부여하여 재배치함. 길 위의 인문학 결과물을 연도별 책자로 발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향토 자료로 열람 가능하도록 배치함.
다원화	전시 프로그램	참여자가 생산한 프로그램 기록을 외벽 갤러리에 전시와 같은 형태로 활용함.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및 다른 프로그램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도서관 큐레이션 공간에 전시함.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출판된 기록을 모아 담론 및 전시, 행사 등으로 기획해보고자 함.
	공모 사업	지원 사업의 일회성 및 주제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빙이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함. 공모 사업의 일회성 특성과 목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록관리 계획 수립이 어려움.

### 4.3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분석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문헌조사와 공공도서관 담당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록은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네 차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생산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 담당자뿐 아니라 강사, 보조 인력, 참여자까지 다양한 행위 주체가 기록 생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완료 단계에서 회의록, 기획안,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강의자료, 활동지, 사진, 그림, 에세이, 홍보물, 실적·지출 서류, 결과보고서 등을 생산하였다. 다만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이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아,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록의 누락이 발생하고 있었다.

획득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등 외부 기관도 기록 획득의 주체로 기능하였다. 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뿐 아니라 사업관리시스템, 인문네트워크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해 획득되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내부 시스템에는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일부 행정기록만 제한적으로 등록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은 조직 내부의 기록으로 충분히 획득되지 못하였다.

조직화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기록의 분류와 저장을 담당하였다. 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에서 계획, 운영, 지출, 보고, 예산 등의 업무 기능에 따라 철 단위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록이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되기는 하지만, 업무 기능과 프로세스를 반영한 체계적 재조직화나 기록 간의 맥락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원화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나 외부 주체와의 지속적 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전시나 출판 등 프로그램 결과물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단기적 활용에 머물렀다. 공모사업의 단기성과 사업 종료 이후의 한계로 인해 기록이 지속적으로 축적·순환되는 구조나 장기적 아카이브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표 2〉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차원	축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비고
생산	행위 주체 (업무 행위자)	공공도서관 담당자, 강사, 보조 인력, 프로그램 참여자	공공도서관 담당자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 행위자를 통해 도큐먼트가 생산됨.
	업무 행위 (처리 행위)	기획, 진행, 완료 단계에 따른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레코드키퍼 (도큐먼트)	회의록, 기획안, 사업공모신청서, 진행 전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강의 자료, 활동지, 사진, 그림, 에세이, 홍보물, 실적 및 지출 관련 서류, 결과보고서 등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 기록이 도큐먼트로 생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획득	행위 주체 (그룹)	공공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록의 획득 주체는 공공도서관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외부 주관기관도 포함됨.
	업무 행위 (활동)	생산된 도큐먼트들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사업관리 시스템, 인문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레코드키퍼 (기록)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등의 행정업무와 연관된 기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와 연관된 기록들만 조직 내부의 기록으로 획득됨.
조직화	행위 주체 (조직)	공공도서관	-
	업무 행위 (기능)	계획, 지출, 운영, 보고, 예산 등과 같은 공공도서관 기능을 기반으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획득된 기록들이 기록물 철 등으로 분류됨.	공공도서관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명확한 분류 기준 없이 조직 내에서 획득된 기록이 임의적으로 분류됨.
	레코드키퍼 (아카이브)	업무 기능 및 맥락 기반 조직화·재배치 사례 없음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직화는 기록관리 사례로 보기 어려움.
다원화	행위 주체 (대규모 단체)	(명시적 언급 없음)	특정 지역사회나 주체와의 연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업무 행위 (목적)	전시(외벽 갤러리, 큐레이션), 출판 등 공공도서관에서 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 기획 시도	기록이 단기적 활용 중심이며, 순환 구조 형성은 확인되지 않음.
	레코드키퍼 (아카이브즈)	(장기적 아카이브 체계 존재하지 않음)	프로그램의 단기성과 공모 사업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아카이브 사례 확인되지 않음.

## 5. 레코드 컨티뉴엄 차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1 생산 차원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생산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다양한 생산 주체를 통해 기록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되어야 할 기록의 부재와 기록 생산 방식의 비일관성이 주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공공도서관 담당자에 의해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과 같은 행정적 기록은 정형화된 양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들은 이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강사, 참여자, 보조 인력 등 다양한 주체들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활동지,

강의 자료, 사진, 에세이, 그림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 생산 기준이나 형식은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생산 주체마다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과 관련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서의 가치나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업무 프로세스상 추후 획득되어야 할 기록으로 명시된 포스터 등 홍보물조차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한 기록 생산 체계와 실제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록 생산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한 기록만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 담당자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산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의 의미와 내용을 반영하는 기록들은 단편적으로 생산되거나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생산 차원에서부터 기록관리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며, 이후 획득·조직화·다원화로 전위되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록 생산의 체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 생산 주체별 유형 목록을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사전 정의한다. 사업신청서, 강사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되는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강사의 강의 자료, 참여자의 활동지, 그림, 사진, 글쓰기, 결과물 등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을 담는 기록을 유형화하고, 이를 생산 주체별로 구분하여 목록화하는 방식이다. 이은비와 정연경(2021)은 구술기록물 수집을 위한 정책 및 매뉴얼 수립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기록물의 수집 범위를 지정하고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맞춰 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생산하는 기록을 ‘기획된 기록’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록 생산이 체계화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록 생산 방식을 사전에 설계하고 이를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일부 기록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형식과 무관하게 각 도서관의 판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회의록, 기획안 같은 기록들이 생산되거나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 기록들이 아예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된 기록 유형별로 표준화된 양식과 생산 시점, 제출 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와 강사, 참여자 등의 주체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내에서도 프로그램 기록 생산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기록 생산과 획득이 다수의 주체를 통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 주체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공공도서관이 프로그램 기록의 주요 관리 주체로서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상위 기관들은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지원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생산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생산되어야 할 기록의 부재 및 기록 생산 방식의 비일관성이라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더불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큐먼트가 실제 생산되는 과정에서부터 기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생산 단계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획득·조직화·다원화 차원으로의 연속적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 5.2 획득 차원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획득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공공도서관 조직 내부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획득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록 획득 주체 및 방식의 분산이 주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공공도서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된 사업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일부 행정 기록은 내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제한적으로 획득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생산된 다수의 기록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업관리시스템, 한국문화예술회의 인문네트워크시스템 등 외부 기관

시스템을 통해 획득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록의 획득 주체가 공공도서관 외부 조직에 집중되어 있고, 기록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시스템별로 분산 획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기록관리 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조직 외부 시스템의 경우, 공공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접근 권한이 제한되거나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생산된 기록이 조직 내부의 기록으로 기억되고 활용되는 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강의 자료,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한 기록의 경우, 공공도서관 내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으로 온전히 획득되지 못하고, 개별 공공도서관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록 획득의 시스템이 분산되고, 획득의 범위와 접근성이 제한되며, 조직 내부 기록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는 기록의 연계성과 업무 맥락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산된 기록 중 상당수가 공공도서관 내부의 기록으로 적절히 획득되지 못하고 있으며, 획득 주체와 시스템의 분산으로 인해 기록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획득 차원에서 기록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며, 이후 조직화 및 다원화 차원에서의 전환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업무 진행과 동시에 기록을 생산, 분류, 보존, 폐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지침 및 기능요건 표준 『KS X ISO 16175-3』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표준 『NAK 19-1:2012(v1.0)』의 기록관리 기능요건을 반영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통합된 형태’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업무 진행과 동시에 기록을 생산, 분류, 보존, 폐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통합된 형태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공도서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록이 생산되고 저장되므로 기록 생산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확보된다. 둘째, 별도의 시스템 이관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기록관리의 복잡성이 감소하고, 기록의 연속성과 맥락성이 유지된다. 셋째, 행정기록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록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부에서 기록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된 형태의 시스템 도입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기록 획득 체계를 통합하고, 조직 내 기록의 연속적 획득과 통합적 구조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도입 시에는 각 도서관의 운영 환경, 인프라, 예산, 인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사용자 교육과 기록물 보존 및 폐기 기능의 적정 수행도

병행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은 획득 차원에서 드러난 기록 획득의 분산 문제와 생산된 프로그램 기록이 조직의 기록으로 온전히 획득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기록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며, 이후 조직화 및 다원화 단계로의 원활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만으로는 분산되어 생산되는 프로그램 기록의 통합적 획득과 장기적 활용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공공도서관이 프로그램 기록의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스템 반영을 위한 분류체계 마련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록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이관, 보존 및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5.3 조직화 차원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조직화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의 분류 및 재배치 과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동일한 유형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획득된 프로그램 기록이 공공도서관이라는 조직의 기능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조직화’ 차원에서 요구되는 기능 중심의 구조화와 맥락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의 분류가 조직의 행정 기능이나 업무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록이 조직 내에서 향후 활용 가능한 기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의 표준화와 맥락의 보존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운영방식은 단지 문서철 단위의 정리와 보존에 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기록이 조직 내 시스템에 획득되더라도 그것이 조직의 의미 있는 정보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분류 기준의 일관성, 기능적 맥락화, 구조화 등의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서 말하는 조직화 차원의 실질적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기록의 관리·보존을 넘어 조직 내 공유 및 검색·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앞서 드러난 조직화 차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 분류 및 재배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 분류 기준을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관점에서 설계한다. 현문수와 설문원(2018)은 전자기록의 분류 방식을 기존의 기록철-건 형태와 같은 고정적, 계층적 집합구조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방사형 네트워크 구조로 제안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동일한 기록이라도 ‘행정업무’, ‘성과증빙’,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기능 및 활용 목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와 업무 맥락을 다층적으로 입력하는 분류 항목들을 도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이 단일 용도에 종속되지 않고, 조직 내외의 다양한 업무와 맥락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화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다.

둘째, 도서 형태로 제한된 자료관리시스템 활용 방식을 확장한다. 도서 및 책자 형태의 프로그램 결과물과 더불어 그림, 사진, 에세이 등과 같은 기록들도 단순 도서분류체계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아카이브’, ‘지역 문화 자료’ 등 별도의 분류체계로 병행 관리하여, 향후 전시,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맥락에서 재활용 가능한 조직 자산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자료는 단순 보존을 넘어 공공도서관 조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가능한 다층적·다원화된 조직화 체계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조직화 차원에서 확인된 분류 기준 부재에 따른 조직화 일관성 저하와 실질적으로 조직화가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관점에서 기록의 구조화 및 맥락화 과정을 강화하여, 기록이 조직 내 집합적 기억으로 기능하고 장기적 활용과 지식 공유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5.4 다원화 차원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다원화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생산된 기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해석되거나 새로운 기록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단기적 활용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기록을 다원화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빙 체계가 부재하여 기록의 다원화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1년 단위의 공모 사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적인 기록관리와 지속적 활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기록도 단절되어, 이후 아카이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참여자들이 생산한 에세이, 사진, 활동지 등은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책자 발간이나 전시와 같은 다원화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개별 담당자의 자율성과 기획력에 의존한 예외적 사례에 불과했으며, 특정 지역사회나 집단과의 연계 속에서 반복적 기록 생산으로 확장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기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면담 결과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원화는 일회성 및 단편적 활용에 그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기록을 재구성하고 다시 생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록이 사회적 기억 자원으로 순환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다원화 차원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원화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록관리 방안으로 첫째, 다원화 기록의 재생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 구조 마련과 아카이브 구축이다. 신은주와 박지영(2024)은 아카이브 전시가 단순히 지역사회의 기억을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시 자체가 새로운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지는 매개이자 연결고리로 기능함으로써 기록의 연속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시와 같은 다원화 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록을 단지 소비의 대상이 아닌 재생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창작과 해석 활동을 포함한 참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시 프로그램 종료 후 도서관 내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전시된 기록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록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록이 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생산된 기록을 공공도서관에서 아카이브 컬렉션과 같은 형태로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문화 자산으로 진화하게 된다.

둘째, 다원화 이후에도 참여자 및 지역사회를 통해 다양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연속형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시설 담당자가 회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후속 모임’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1회차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모 사업의 특성상 차년도 사업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한 조치로 이해된다. ‘후속 모임’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각 기관 내부에서 연속적인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후속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및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원화의 행위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창작 활동을 수행하거나, 전시 기록을 활용한 인터뷰 아카이빙, 지역 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은 기록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록 생산의 순환 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관리방안은 다원화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기록이 재순환되지 못하고 단기적 활용에 그치는 한계와 명확하지 않은 다원화 행위 주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빙 체계 부재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다시 새로운 기록 생산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다원화 차원의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기록이 일회성 성과물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공유되는 살아 있는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 6. 결론

본 연구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기반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공도서관이 프로그램 기록관리 주체로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4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네 가지 차원(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에 따라 구조화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생산 차원에서는 기록의 부재와 비일관적인 생산 방식이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비정형적으로 기록이 생성되거나 핵심 기록이 생산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졌다. 획득 차원에서는 생산된 기록이 조직 내부 시스템으로 충분히 획득되지 못하고, 외부 시스템 의존으로 인해 기록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조직화 차원에서는 기록의 분류와 관리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져 기능적 맥락에 기반한 체계적인 구조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원화 차원에서는 기록이 단기적 활용에 그치고 재해석 및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산 단계에서 기록 유형과 생산 주체를 사전에 정의하고 표준화된 양식과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획득 단계에서는 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직화 차원에서는 기능 중심의 다층적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기록의 맥락과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원화 차원에서는 기록의 재해석과 지속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참여 기반 아카이브와 지역사회 연계 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적용하여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특정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한계가 있으며,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과 기록 생산 주체를 포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기록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공공도서관이 기록 생산 및 관리 주체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기록관리의 방향성과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 및 실무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명훈 (2010). 레코드 컨티뉴엄과 평가, 그리고 기록콘텐츠: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관리연구*, 41(3), 131-153.  
<https://doi.org/10.1633/JIM.2010.41.3.131>
- 김명훈 (2017).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241-275.  
<https://doi.org/10.20923/KJAS.2017.52.246>
- 김명훈 (2021).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에 관한 연구: 라이프사이클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8), 5-3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 김명훈 (2022). 레코드 컨티뉴엄의 기록 평가 논리 분석: 라이프사이클과의 비교를 통한 핵심 요소 도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25-46.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25>
- 노명환 (2023). 노근리사명 규명·노근리정신 정립과 기록의 힘: 레코드 컨티뉴엄 및 공공역사 개념을 적용한 분석과 이해.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7), 7-68. <https://doi.org/10.23035/KAICS.2023.01.17.007>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 박예진 (2022).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방송사 보도영상 기록관리 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은주, 박지영 (2024).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전시 아카이브 구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145-167.  
<https://dx.doi.org/10.16981/kliss.55.4.202412.145>
- 안현진 (2023).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원종관 (2008).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승억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https://dx.doi.org/10.20923/KJAS.2001.4.031>
- 이은비, 정연경 (2021).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49-68.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2.049>
- 최상희 (2020).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 분석 연구: 미국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51-374.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351>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현문수, 설문원 (2018). 차세대 공공 전자기록의 조직 모형 개발을 위한 방향 탐구. 기록학연구, (56), 183-212.  
<https://doi.org/10.23035/KAICS.2021.1.12.00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Hyun-Jin (202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Choi, Sang-Hee (2020). Analysis of public library programs: U.S. public libraries' pract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351-374.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351>
- Compilation Committe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ctionary (2010).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Hyun, Moon-Soo & Seol, Moon-Won (2018). An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conceptual model for organizing public digit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6), 183-212.  
<https://doi.org/10.23035/KAICS.2021.1.12.007>
- Kim, Myung-Hoon (2010). Records continuum, appraisal and archival contents: Building the concept of archival content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1(3), 131-153. <https://doi.org/10.1633/JIM.2010.41.3.131>
- Kim, Myung-Hoon (2017). A study on the meaning of record contents based on record continuum: Focusing on the record contents of religious institu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2), 241-275.  
<https://doi.org/10.20923/KJAS.2017.52.246>
- Kim, Myung-Hoon (2021). A study on the origin of record continuum theor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record lifecycle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8), 5-3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 Kim, Myung-Hoon (2022). A study of appraisal in record continuum theory: Derivation of key element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appraisal in life cycle mode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25-46.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25>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Archival Science. Seoul: Yeoksabipyongsa.
- Lee, Eun-Bi & Chung, Yeon-Kyung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al records management for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2), 49-68.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2.049>
- Lee, Seung-Eok (2001).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Regime'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examin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 by PRA ac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 31-62. <https://dx.doi.org/10.20923/KJAS.2001.4.031>

Noh, Myung-Hwan (2023). Identification of the No Gun Ri incident, establishment of the spirit of No Gun Ri, and the power of records: Analysis and understanding based on the concepts of records continuum and public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7), 7-68. <https://doi.org/10.23035/KAICS.2023.01.17.007>

Park, Ye-Jin (2022). A Study on Video Recordkeeping System for News Broadcasting Based on the Records Continuum.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in, Eun-Ju & Park, Ji-Young (2024). Developing community exhibition archives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4), 145-167. <http://dx.doi.org/10.16981/kliss.55.4.202412.145>

Won, Jong-Gwan (2008). A Study on Reconciliation of Evidence and Memo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Continuum.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